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2월 26일(월) 총 3매	
담당 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 도시정책팀장 김도연 ☎440-4601 • 담당자 신현숙 ☎440-460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기틀 다질 것

-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등 핵심 정책 선도할 도시계획 수립 -
-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 군부대 이전·재배치로 원도심 균형발전 이끌 것-
- 서민 주거환경 개선위해 5만5천호 주택 공급도 -

인천시가 2023년 ‘시민이 안전한 친환경 자족도시’ 추진을 목표로 7개 전략을 제시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26일 유정복 시장 주재로 열린 2023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회에서,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공간 재창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행복 도시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는 민선8기 정책에 부합하는 ‘초일류 도시 북부 종합발전계획’으로 북부권에 대한 도시·공간계획(도시, 교통, 환경)을 전면 개편해 인천 주도의 장래 도시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 루원시티 사업구역 내 핵심 앵커시설(인천지방국세청, 루원복합청사)이 반영돼 서북부지역 주민 편익 향상에 이바지 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부평의 가치를 더하는 ‘캠프마켓 로드맵 2.0’을 수립해 공원조성 사전절차 등 실천적, 구체적 추진체계를 구축했고, 광주 공동주택 시공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위한 건축공사 현장 특별 안전점검 등으로 바쁜 한해를 보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내년에도 미래예측과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 밀착형 도시계획 수립 및 시민의 정주여건을 지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① 지속가능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정책 수립 ② 도시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및 정주여건 조성 ③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관리 ④ 미래로 이어가는 토지·공간정보 창조 ⑤군부대 반환·이전부지 활용을 통한 도시공간 재창조 ⑥ 품격있는 건축문화 창출 ⑦ 지속가능한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를 2023년도 7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우선 인천시는 민선8기 핵심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등 주요 핵심정책을 제시하고, 경제자유구역 확장, 자원순환 정책, 도시철도망 변경 및 경인전철 지하화 상부 구상 등 굵직한 인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한다.

장기방치 및 유휴토지, 코로나19등 여건변화로 인한 경기침체 지역, 역세권 등 개발압력이 높은 사전협상 후보지의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방향을 마련해 도시경쟁력 향상 기틀을 마련하고, 원도심 기반시설 재투자를 위한 공공기여 기금운용 제도를 마련해 원도심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특히 군부대 반환·이전부지 활용을 통한 도시공간 재창조로 민선8기 공약사업인 원도심 균형발전에도 속도를 높인다. 생태·문화·역사 등 캠프마켓의 가치를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 이전부지 주변 활성화사업, 주요 군부대 이전 재배치 계획 수립을 통해 원도심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확보의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권역별 장래 균형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구상에도 착수한다. 미추홀·연수·남동구 등 남부권역의 생활 SOC 공급, 공급계획 및 교통개선 등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영종권역에는 앞서 지난 8월 유정복 시장이 밝힌 행정구역 개편에 대비함은 물론,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영종 미개발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전략도 마련한다.

또한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5만5천호의 주택공급도 이뤄진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건설,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5천호를 공급하며, 양질의 공공(LH, iH)·민간주택 5만호를 공급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과 조례를 제정해 녹색건축보급을 촉진하고 특화녹색 건축물 조성으로 살고 싶은 고품격 녹색도시를 실현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계획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용현·학익지구, 송도테마파크, 캠프마켓, 사월마을 등 현안사업을 책임있고 소신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축, 주택 분야는 도시의 중요한 요소로 특색, 경관, 형태 등 동일한 형태가 아닌 차별화된 특색을 살린 규정 등이 필요하므로 해외 사례 등 자료 조사 및 비교 분석을 통해 미래 건축물 모델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에는 현안들을 제대로 해결하고자 방향을 정하고 시기를 미루지 말고 입장을 명확히 밝혀 결정을 내려 시간 지체 없이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 요약본(도시계획국)